

[해외 실무수습기]

기회의 도시, 중국 重慶

- 1982년 12월 생
- 부산진여자고등학교 졸업
- 부산대학교 법대 졸업
- (前) 방송진행자 (KNN 부산경남방송)
- (現)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기 생



박수경

I. 시작

비행기에 몸을 싣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다. 2학년이 되기 전 겨울방학인데 책상 앞에서 법전과 씨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계속 마음이 무거웠다. 일주일정도 혼자 고민을 한 끝에 중국법 학회에 가입을 했다. 동아대학교는 국제상거래를 전문분야로 하고 있어 그와 관련된 학회 활동이 활발했기에 학회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정보를 얻기 좋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중국법을 전문으로 가르치시는 조동계 교수님도 찾아뵈었다. 내가 생각하는 방송, 저작권과 관련된 법이 나아갈 중국 법률시장이 궁금했고, 이번 충청행이 나의 꿈과 얼마나 연결고리가 있을런지도 궁금했다. 2시간여 대화한 끝에 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중국의 발전가능성 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의 한국에 대한 관심 정도

를 보면 방송, 저작권 관련 분야의 법률시장도 얼마든지 발전 가능해 보였다.

로스쿨 입학 전 수년간 리포터, 인터뷰어로 사람들을 직접 만나면서, 뉴스 속 캐스터로 서면서, 또 라디오 부스의 마이크 앞에 앉아 있으며 생각하고 쌓은 것들을 변호사가 되어 펼치고자 했을 때 중국행은 마치 예정된 것처럼 꼭 맞는 기회다 싶었다. 그렇게 알찬 2주를 꿈꾸며 2011년 1월 2일 일요일 충칭행 비행기를 탔다.

II. 첫 만남

다 늦은 저녁 도착한 공항은 습기를 가득 머금은 공기가 젤 처음 느껴졌다. 짐을 싸기 위해 미리 알아본 대로 충칭의 날씨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온도가 높고 습도도 높았다. 마중 오신 서남정법대학교수님들과 함께 우리를 인솔해 가신 조동제 지도교수님과 학생들은 호텔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충칭의 풍경은 밤인데도 그 고유의 정취가 강해 하루 저녁 느낌으로 정의할 수 없을 만큼 독특하게 느껴졌다.

둘째 날 아침, 9명의 학생은 각자의 법률사무소에 출근하기 전 위치를 확인하고 첫 인사도 드릴 겸 다같이 3곳의 법률사무소를 방문했다. 백군, 로천, 곤원 법률사무소에 각 3명의 학생이 나누어져 그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실무수습이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각각 사무소는 마치 공기관과 같은 딱딱한 느낌에서부터 매우 가족적인 분위기까지 다양했다. 특히 변호사들의 자유분방한 느낌과 편안한 옷차림이 우리의 변호사 사무실과 조금 다른 느낌이었는데 이는 의뢰인과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보다 편안한 상담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변호사는 늘 정갈한 정장으로 출근을 해야 한다는 내 생각은 편안한 점퍼를 입은 한 여자 변호사의 정돈된 말투와 밝은 미소로 금세 편견이었다는 생각을 갖게끔 만들었다.

III. 실습활동

만약 중국 여행이었다면 절대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가까이에 있었기에 설레는 하루 하루의 연속이었다. 내가 실습한 곳은 백군법률사무소로 충칭의 3대로뎬에 해당하여 규모가 매우 컸기 때문에 늘 분주했고 빈 사무실이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의뢰인과의 상담 혹은 회의가 이뤄지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실무수습은 법률사무소 내부 활동과 외부 견학으로 고루 진행되었는데 현지의 변호사와 함께 하거나 교수님이 동행하시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오전의 대부분의 시간은 재판 관련서류를 검토하며 설명을 듣는 것이었다. 형사, 민사, 가사 재판으로 나누어 소송자료를 받았고 목차 보는 법부터 소장, 준비서면의 형태 파악에 중점을 두었다. 다소 생소한 부분들이 있어 처음에는 매우 낯설었지만 현지 변호사의 자세한 설명으로 곧 익숙해져 갔다. 만약 나중에 기회가 되어 중국 현지의 법률사무소와 일한다면 지금의 경험이 얼마나 값지게 될지를 생각하면 뿌듯해졌다.

오후 시간은 매일이 다르게 진행되었는데 야외 견학을 가거나 내부에서 강의가 진행되었다. 우리팀은 법원, 중재위원회, 세관 등을 견학하여 재판과정이나 중재 과정을 직접 참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국인이 아니어서 출입부터 조심스러운 면이 있었고, 법원이나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사적인 정보들을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앉아서 참관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현지 변호사의 도움으로 가능했다.

오후 활동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은 바로 현지 변호사의 중국 법률에 대한 강의였다. 특히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수사에서부터 집행까지 절차에 있어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며 질의와 응답 속에 우리나라 형사법과 비교하는 시간도 가졌다. 현재 중국에서는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있으며 간혹 집행도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변호사들도 그에 관한 의견교류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IV. 중국 법률시장의 현재

중국은 현재 전체 국민대 변호사의 비율이 1만명 당 1명으로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높은 편이다. 현재 전국의 변호사 중 약 4000여명이 중경에서 활동 중이며 400여 개의 사무실이 문을 연 상태다. 따라서 한 법률사무소당 평균 10명의 변호사가 근무하는 꼴이지만 3대 법률사무소의 경우 약 60-7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형 법률사무소는 상사법 위주의 활동과 비소송부문(M&A 등)의 담당 비율이 높은 편이다.

경제발전과 법률시장의 발전은 중경 역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다. 중국 현지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상인의 활동상황과 변호사의 수요가 직결된다고 한다. 그러한 현상을 나타내는 것 중 하나로 인수합병분야의 변호사수요 증가현상이 있었다. 중국은 지난 30여년 간 소규모 기업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경제구조의 변화로 인해 토지취득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중소기업이 토지를 취득하기 힘들게 되자 대규모 인수합병의 움직임이 생겨났다. 이로 인해 변호사는 소송분야와 더불어 비소송분야에도 많이 필요하게 되었고 법률시장 확대는 가속

화 되었다.

또한 이러한 변호사 수요증가로 인해, 변호사시험 지원자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지원자대비 합격자는 약 10% 정도이며, 현지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한국이나 일본, 미국, 프랑스 등에 비해 전문성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편은 아니라고 했다. 이전에는 업무를 위해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앞으로 전문화과정을 이루어가려는 노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치사회, 법치교육 등을 통해 변호사의 입지를 높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중국의 경제성장이 곧 법률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은 우리나라 법률 시장에도 그 영향이 미치고 있다. 이미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등지는 우리나라 로펌들이 성업중인데 중국으로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 지원에 현지변호사가 할 수 없는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충칭의 한 교민도 기업이나 개인 투자자가 처음 들어올 때 언어와 법률, 관습 등의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많이 봐 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충칭이 우리나라의 4/5 크기에 달하는 거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 로펌이 제대로 활동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연초 중국 내수시장에서 감지되는 특징을 보면 이미 발전을 이룬 1급 도시보다 2,3급의 도시가 소비증가세가 뚜렷해 한국업체들이 점차 이곳으로 집중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충칭의 경제발전가능성과 한국기업진출가능성을 생각했을 때 충칭 법률시장에 대한 기대를 더 높이는 부분이기도 하다.

V. 짧은 2주

우리는 2주간 그 누구보다 충칭인이 되어보고 싶었다. 실습시간동안은 로펌의 변호사와 같은 시간 함께 호흡하고 싶었고 퇴근 후 길에서 만나는 현지인과 같이 그 도시속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싶었다. 도착한 날 너무도 낯설었던 중경식 음식은 곧 골목의 허름한 가정식 집에서도 맛있게 느껴졌고, 흔들리는 버스에 뺨뺨이 끼여 타는 것, 개조된 3바퀴 자동차를 흥정해서 타는 것도 즐거운 일상이 되었다. 협곡을 만들며 흐르는 장강위로 높게 설치된 다리를 건너는 일은 언제나 대자연의 만끽할 수 있기에 기분 좋은 일이었다.

웬지 첫인상은 무뚝뚝해 보였던 충칭 사람들은 조금만 대화를 해보면 참으로 정감 있었고, 한류열풍 때문인지 한국인이라 인사를 하면 매우 반가워해 주었다. 종종 시간이 나면 현지변호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맥주잔을 기울였던 저녁, 입국하기 전 주말 한국 노래 '친구'를 중국어와 한국어로 함께 부르던 일도 참 따뜻

하게 기억난다. 딱딱하지만은 않았던 실무실습. 지식을 담은 것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배움을 얻은 2주간의 경험은 나를 한층 성숙시켰다. 이는 억만금 비축한 비밀통장보다 값진 것이리라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뿌듯함에 빠져 들었던 기억이 난다.

VI. T자형인재 A자형 인재

일본의 한 이공계 회사에서는 T자형 인재를 강조했다. 여기서 수직 막대기는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이고, 수평막대기는 다른 분야에 대한 폭넓은 교양과 이해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인 안철수는 A자형 인재를 강조한다. T자형인재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강조한 형태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재상은 다만 이공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법조계도 로스쿨의 설립취지와 법률시장의 다양화를 위해서 법학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뿐만이 아니라 각자 다른 분야에 대한 지식을 수반한 변호사를 더욱 많이 양성하여야 한다. 지난 1월 충청의 실무실습은 바로 이러한 인재를 만들어내는 좋은 프로그램의 하나이었으리라 확신한다. 1학년 한 해 동안 열심히 공부한 법학공부를 바탕으로 중국의 법률서비스를 접목시켜 학습할 수 있었고, 현지 변호사들과의 커뮤니케이션으로 더 큰 시각을 얻었으니 말이다.

동아대학교에서 2회째 이루어진 중국실무실습이 앞으로도 더 학생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 희망을 가지며 앞으로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중국법률시장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리라 믿는다.

